## Homework 6

## SNU 4190.310, 2015 가을

Kwangkeun Yi

Due: 11/24(Tue), 24:00

## 이번 숙제의 목적은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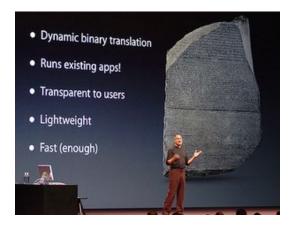
- 애플사에서 자랑했던 하위언어 자동번역 기술을 손수 이뤄보기. (특별한 기술이 아님을 겪고 자신감을 가지기)
- 프로그램식의 실행순서를 프로그램에 드러내는 변환기를 만들어 보기.
- 람다계산법의 중력권에서 디자인된 언어의 실행기 완성하기.

## Exercise 1 (50pts) "SM5 Rozetta"

오늘날과 같은 Apple사의 발전에 핵심역할을 한 소프트웨어 중 하나가 기계어 번역(binary translation) 기2005년 애플이 PowerPC 프로세서에서 Intel 프로세서로 갈아타는 선언을 한다. 같은 해 6월에 Apple's World Wide

\_\_\_\_\_\_\_\_\_\_\_ <sup>1</sup>정확하게는 "실행중 기계어 번역"(dynamic binary translation) 기술.

Developer Conference에서 잡스가 Rosetta라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소개한다:



소비자가 새로운 애플제품을 구매해도 PowerPC에서 작동하던 예전 소프트웨어를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었다.



이 Rosetta 소프트웨어의 엔진은 애플이 비밀리에 Transitive라는 회사



로부터 구입한 기계어 번역기였다. 당시 Transitive사는 영국 맨체스터에 본사를 둔 아주 작은 벤쳐회사 였다.<sup>2</sup>

이번 숙제는 이러한 번역기를 SM5에 대해서 만들어보는 것이다. SM5 프로그램을 Sonata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번역기이다.

Sonata가 SM5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. 이외에는 모두 같다.

• Sonata는 SM5 부품 중에서 K("continuation") 부품이 없다:

(S, M, E, C).

 $<sup>^2</sup>$ Transitive사는 그 후 IBM에 인수됩니다. 당연히 돈방석에 앉았겠지요, 그 회사 연구원들과 설립자인 멘체스터 대학의 Alasdair Rawsthorne교수등.

따라서,  $\mathrm{SM5}$ 에서 K부품을 건드렸던 call 명령의 의미와 빈명령문의 의미는  $\mathrm{Sonata}$ 에서는 다음과 같다:

$$(S, \hspace{1cm} M, \hspace{1cm} E, \hspace{1cm} empty)$$
  
 $\Rightarrow (S, \hspace{1cm} M, \hspace{1cm} E, \hspace{1cm} empty)$ 

• 메모리는 스택에 저장할 수 있는 값들을 모두 저장할 수 있다. 즉,

$$S \in Stack = Svalue \ list$$
  $M \in Memory = Loc \rightarrow Svalue$ 

여러분이 고안할 것은, 문제없이 돌아가는 SM5 코드를 받아서 Sonata 코드로 변화하는 함수

rozetta: Sm5.command -> Sonata.command

를 작성하는 것입니다. 모듈 Sm5와 모듈 Sonata는 제공됩니다. □

Exercise 2 (60pts) "앞으로 할 일 드러내기"

프로그램의 의미구조(실행과정)를 살펴보면, 매 식마다 그 식의 계산이 끝 나면 할 일이 무엇인지 결정되어 있다. 예를 들어 다음의 덧셈식을 생각해 보 자:

$$e_1 + e_2$$

식  $e_1$ 과  $e_2$ 의 계산이 끝나면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? 두 결과값을 가져다가 더하는 것이다. 이 할 일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. "두 결과값을 가져다가"는 함수의 인자로 받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, 함수 내부에서는 이 인자를 가지고 앞으로 할 일을 표현하면 된다. 이런 함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:

$$\lambda v_2.v_1+v_2$$

여기서  $v_1$ 은 식  $e_1$ 의 결과를 받은 인자다. 또는, 더한 결과를 가지고 할일이 함수  $\kappa$ 로 정해져 있다면, 이런 함수 정도일 것이다:

$$\lambda v_2 . \kappa (v_1 + v_2)$$

일반적으로 각 식마다 그 식이 계산된 후 앞으로 할 일은 함수다. 그 식의 결과를 인자로 받는 함수다. 이런 함수가 그 식이 계산된 후 앞으로 할 일이다.

이제 프로그램의 모든 식마다 그런 함수 - "앞으로 할 일 함수(continuation)" - 를 생각하면서 실행순서를 드러낼 수 있다. 모든 식들을 변환해서, 각 식이 계산을 끝내고 진행해야 할 "앞으로 할 일 함수"를 그 식의 인자로 받아서 계산을 진행하는 형태로 꾸밀 수 있다.

이런 변환을 "CPS(continuation-passing-style)-변환"이라고 한다. $^3$  원래 식을 e, CPS-변환된 식을 e라고 쓰고 두 식의 차이를 타입 레벨에서 보이면 다음 과 같다:

$$e: (Int \rightarrow Result) \rightarrow Result$$

원래식의 결과가 정수(Int)라면, 변환된 식은 정수를 받아서 최종 결과로 보내는 미래 $(Int \to Reult$  타입의 앞으로 할 일 함수)를 받아서 최종 결과(Result)를 내 놓는 식이 된다.

위의 덧셈식을 CPS-변환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:

$$e_1 + e_2 = \lambda \kappa. \ e_1(\lambda v_1. \ e_2(\lambda v_2. \ \kappa(v_1 + v_2)))$$

위에서 인자로 받는  $\kappa$ 가 덧셈식이 끝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표현한 함수(continuation) 이고,  $e_1$ 에 전달되는

$$\lambda v_1.e_2(\lambda v_2.\kappa(v_1+v_2))$$

은  $e_1$ 이 실행된 후 해야할 일이고,  $e_2$ 에 전달되는

$$\lambda v_2 \cdot \kappa (v_1 + v_2)$$

은  $e_2$ 가 실행된 후 해야할 일이다.

따라서, 프로그램 e를 CPS-변환한 결과  $\underline{e}$ 에 최종 할 일 $(\lambda v.v)$ 를 던저주면 원래의 식이 계산하는 결과를 내놓게 된다:

$$e \equiv \underline{e}(\lambda v.v)$$

아래의 적극적인(eager-evaluation, or call-by-value) 프로그래밍 언어를 생

 $<sup>^3</sup>$ CPS-변환을 하고 나면, 프로그램 텍스트에 프로그램의 각 식들이 계산되는 순서가 드러나게 된다.

각하자. 수업에서 다룬 언어의 일부분이다.

위의 언어로 짜여진 프로그램을 CPS-변환하는 변환기 함수:

를 정의하라. 변환된 결과 e는 e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. 위 언어의 실행기 run으로 다음과 같이 실행시켜서 두 결과가 같아야 한다:

$$run(e) = run(\underline{e}(fn v \Rightarrow v))$$

변환할 프로그램은 항상 자연수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. 조교는 위 언어의 실행기 run과 mexp의 파서를 제공할 것이다.

Exercise 3 (30pts) "M 실행기"

수업시간에 구축해간 프로그래밍 언어에 약간의 간을 한 언어가 M 이다. M 언어의 실행기의 대부분이 제공될 것이다. 첨부된 M의 정의에 그 언어의 의미에 대한 모든 것이 있다. 이에 기초해서 나머지를 완성하라. □